KEF 경총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지난 10년(2011~2020)간 주요 고용지표 국제비교와 시사점

2021. 9.

◂ 목 차 ▸

1. 코로나19 이전(2011~2019년) / 1

가. 주요 고용지표 순위 / 1
나. 고용률 / 2
다. 실업률 / 4

2. 코로나19 위기(2020년) / 6

가. 고용률 / 6
나. 실업률 / 7
다. 코로나19 고용 충격 국제비교 / 8

3. 결론 및 시사점 / 11

< 요 약 >

1. 코로나19 이전(2011~2019년): 우리 고용지표는 부진한 흐름 지속

가. [주요 고용지표 순위] 2011~2019년간 우리나라 고용률과 실업률의 OECD 국가 중 순위*는 꾸준한 하락세

* 고용률은 높을수록, 실업률은 낮을수록 순위가 높음.

※ 고용률(15~64세)은 2011년 21위에서 2019년 28위로 7계단 하락
※ 실업률(15세 이상)은 2011년 1위에서 2019년 10위로 9계단 하락

나. [고용률] 우리 고용률은 2015년 이후 66%대에서 정체되면서 OECD 평균과 격차(하회폭)가 확대된 반면, G7 국가와 노르딕 4국은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 연령별 고용률의 경우 고령층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청년층은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편

※ 고용률(15~64세) 격차(하회폭)는 2014년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0.2%p 낮았으나, 이후 격차가 확대되며 2019년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1.9%p나 낮음.

다. [실업률] 우리 실업률은 높아진 반면, G7 국가와 노르딕 4국, OECD 평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우리와의 격차(하회폭)가 축소

※ 실업률(15세 이상) 격차(하회폭)는 2013년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4.9%p나 낮았으나, 이후 격차가 축소되며 2019년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1.6%p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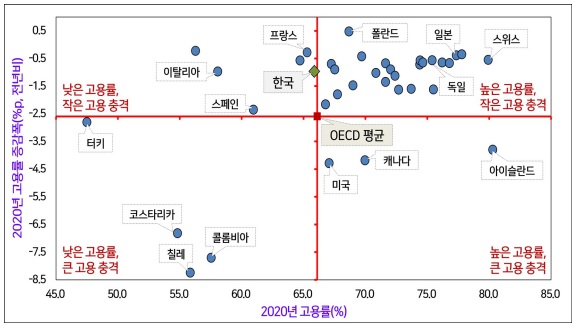
2. 코로나19 위기(2020년): 고용 충격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

[코로나19 고용 충격 국제비교*] 우리나라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OECD 평균보다 모두 낮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작은 국가군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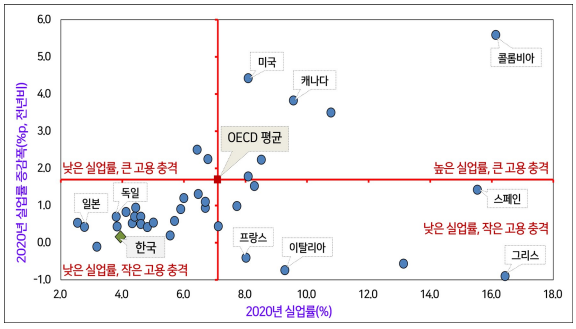
* 2020년 OECD 평균 고용률(실업률)의 '수치'와 '전년비 증감폭(고용 충격)'을 중심점으로 4분면으로 도식화하여 분석

※ 2020년 고용률(15~64세) 하락폭(%p, 전년비): [韓] 0.9 < [OECD] 2.6
※ 2020년 실업률(15세 이상) 상승폭(%p, 전년비): [韓] 0.1 < [OECD] 1.8

< 고용률로 본 코로나19 고용 충격 >



< 실업률로 본 코로나19 고용 충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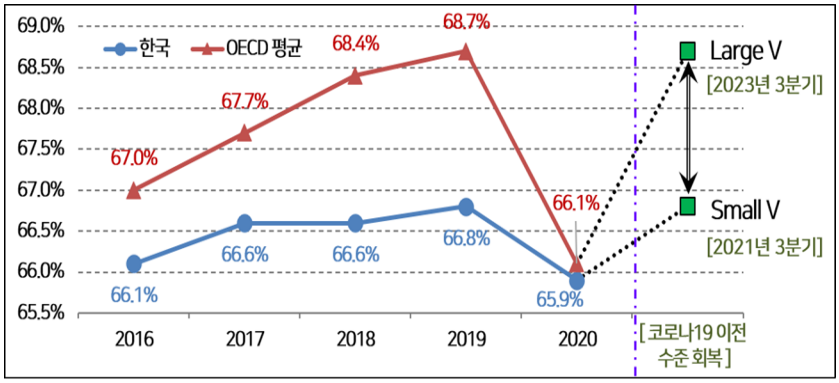


3. 결론 및 시사점: 더 빠르고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필요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보다 낮아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움.

※ 우리 고용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을 여전히 하회할 전망(코로나19 이전 우리 고용률은 OECD 평균 고용률보다 1.9%p 낮았음)

< 우리나라와 OECD의 고용률 추이 및 전망(OECD) >



▸ 특히 최근 고용회복이 아직 더진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 고용은 2021년 3월부터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2020년 고용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모습

▸ 다른 OECD 국가보다 더 빠르고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❶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❷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내실 있게 구축하고, ❸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

❶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기업들이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❷ [촘촘하고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고용보험 사업을 통폐합해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강화하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노동이동을 촉진시켜 나갈 필요

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관광숙박업소 등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소 올해 연말(2021년 12월말)까지 연장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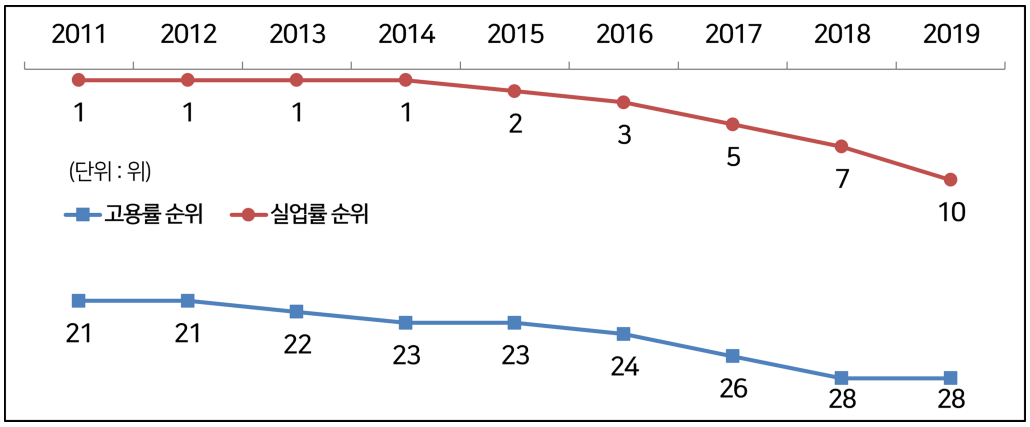
1 코로나19 이전(2011~2019년)

가 주요 고용지표 순위

○ 2011~2019년간 우리나라 고용률과 실업률의 OECD 국가 중 순위는 꾸준한 하락세

- 고용률(15~64세)은 2011년 21위에서 2019년 28위로 7계단 하락했고, 실업률(15세 이상)도 2011년 1위에서 2019년 10위로 9계단 하락(연령별 고용률과 실업률 순위도 모두 하락)

< 그림 1.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고용률과 실업률 순위 변화(2011~2019) >



주: 고용률은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률은 수치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음.
자료: OECD Stat('21.8.30 추출)

< 표 1.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고용률과 실업률 순위 변화(2011~2019) >

구분		2011(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B)	A-B
고용률	전체	21위	21위	22위	23위	23위	24위	26위	28위	28위	▼7
	15~24세	31위	30위	30위	30위	30위	31위	31위	34위	33위	▼2
	25~54세	30위	30위	30위	30위	30위	30위	31위	31위	31위	▼1
	55~64세	7위	9위	8위	7위	9위	9위	10위	13위	15위	▼8
실업률	전체	1위	1위	1위	1위	2위	3위	5위	7위	10위	▼9
	15~24세	6위	5위	5위	7위	8위	9위	11위	14위	15위	▼9
	25~54세	2위	2위	2위	1위	2위	4위	6위	14위	14위	▼12
	55~64세	2위	3위	2위	2위	3위	3위	4위	8위	11위	▼9

주: 1. 고용률은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률은 수치가 낮을수록 순위가 높음.
2. [고용률] 38개국 대상
[실업률] 38개국 대상. 단, 25~54세와 55~64세는 코스타리카 제외 37개국 대상. 55~64세 일부 연도('12, '16~'19)의 경우 코스타리카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6개국 대상
자료: OECD Stat('21.8.30 추출)

나 고용률(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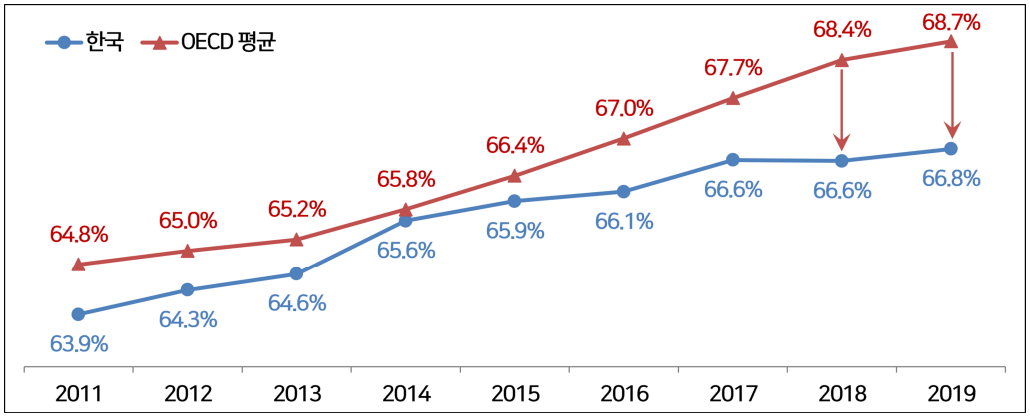
(1) 전체

○ 우리나라 고용률(15~64세)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OECD 평균과의 격차(하회폭)를 줄여 왔으나, 2015년 이후 66%대에서 정체되면서 오히려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확대

-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간 격차*는 2014년 0.2%p까지 감소했으나, 2015년부터 격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2019년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1.9%p나 낮은 상황

* 우리(韓) 고용률과 OECD 평균 고용률 간 격차(%p, OECD - 韓, 15~64세 기준)
: 0.9('11)→0.7('12)→0.6('13)→0.2('14)→0.5('15)→0.9('16)→1.1('17)→1.8('18)→1.9('19)

< 그림 2.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고용률(15~64세) 추이(2011~2019) >



주: OECD 38개국 평균 / 자료: OECD Stat('21.8.30 추출)

참고 1. G7 국가와 노르딕 4국 고용률 추이

■ G7 국가와 노르딕 4국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며 호조세 지속

※ G7 국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 노르딕 4국: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G7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2017년 70%를 돌파했고, 노르딕 4국의 평균 고용률은 2019년 75%를 돌파

※ G7 국가와 노르딕 4국의 고용률 추이(%, OECD stat)

- ▸ G7 국가: 67.5('11)→ 68.1('13)→ 69.2('15)→ 70.6('17)→ 72.0('19)
- ▸ 노르딕 4국: 72.4('11)→ 72.4('13)→ 72.7('15)→ 73.5('17)→ 75.1('19)

(2) 주요 연령대별: 청년층, 핵심근로계층, 고령층

○ 우리나라 고령층(55~64세)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청년층(15~24세) 고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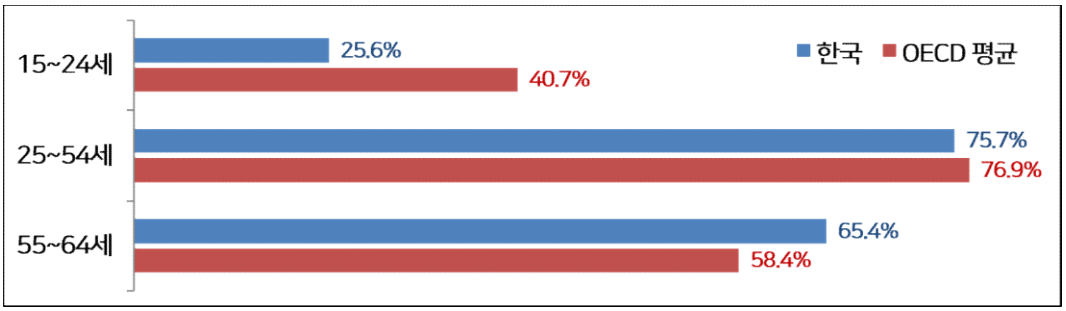
❶ **(청년층: 15~24세)**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25.6%)은 OECD 평균(40.7%)보다 15.1%p나 낮게 나타남(2011~2019년 평균값 기준).

※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남성의 군복무로 OECD 연령(15~24세) 기준 청년 고용률이 낮은 경향이 있음.

❷ **(핵심근로계층: 25~54세)** 우리나라 25~54세 고용률(75.7%)은 OECD 평균(76.9%)보다 1.2%p 낮게 나타남(2011~2019년 평균값 기준).

❸ **(고령층: 55~64세)** 우리나라 고령층 고용률(65.4%)은 OECD 평균(58.4%)보다 7.0%p 높게 나타남(2011~2019년 평균값 기준).

< 그림 3. 우리나라와 OECD의 주요 연령대별 고용률(2011~2019년 평균값) >



주: OECD 38개국 평균 / 자료: OECD Stat('21.8.30 추출)

< 표 2. 우리나라와 OECD의 주요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p, 2011~2019)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15~24세	한국(A)	23.0	24.1	23.9	25.6	26.7	26.9	27.2	26.2	26.5	25.6
	OECD(B)	39.4	39.5	39.5	40.0	40.5	41.0	41.5	42.1	42.4	40.7
	격차(B-A)	16.4	15.4	15.6	14.4	13.8	14.1	14.3	15.9	15.9	15.1
25~54세	한국(A)	74.4	74.7	75.1	75.8	76.0	76.2	76.3	76.4	76.4	75.7
	OECD(B)	75.5	75.7	75.7	76.1	76.6	77.2	77.8	78.4	78.9	76.9
	격차(B-A)	1.1	1.0	0.6	0.3	0.6	1.0	1.5	2.0	2.5	1.2
55~64세	한국(A)	62.3	63.1	64.3	65.7	66.0	66.2	67.4	66.8	66.9	65.4
	OECD(B)	54.7	55.6	56.4	57.4	58.2	59.3	60.5	61.4	62.0	58.4
	격차(B-A)	-7.6	-7.5	-7.9	-8.3	-7.8	-6.9	-6.9	-5.4	-4.9	-7.0

주: 1. 격차는 OECD 고용률에서 한국의 고용률을 뺀 수치(음의 값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더 높음을 의미)
2. OECD 38개국 평균
자료: OECD Stat('21.8.30 추출)

다 실업률(15세 이상)

(1) 전체

○ 2013년 우리나라 실업률(15세 이상)은 3.1%로 OECD 평균(8.0%)보다 4.9%p나 낮았음. 그러나 2014년부터 우리나라 실업률은 지속 증가한 반면, OECD 평균 실업률은 지속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격차(하회폭)가 오히려 축소

-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간 격차*는 2013년 4.9%p까지 벌어졌으나, 이후 격차가 줄어들면서 2019년 1.6%p로 감소

* 우리(韓) 실업률과 OECD 평균 실업률 간 격차(%p, OECD - 韓)
: 4.7('11)→4.9('12)→4.9('13)→4.0('14)→3.3('15)→2.8('16)→2.2('17)→1.7('18)→1.6('19)

○ G7 국가와 노르딕 4국은 2011년 이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특히 G7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2011년 7.7%에서 2019년 4.3%로 3.4%p 급감

< 표 3. 우리나라와 주요 경제권역별 실업률 추이(2011~2019) >

구분	2011(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B)	B-A
한국	3.4%	3.2%	3.1%	3.5%	3.6%	3.7%	3.7%	3.8%	3.8%	0.4%p
G7 국가	7.7%	7.4%	7.1%	6.4%	5.8%	5.5%	5.0%	4.6%	4.3%	-3.4%p
노르딕 4국	6.7%	6.7%	6.9%	6.8%	6.9%	6.7%	6.4%	5.7%	5.6%	-1.1%p
OECD 평균	8.1%	8.1%	8.0%	7.5%	6.9%	6.5%	5.9%	5.5%	5.4%	-2.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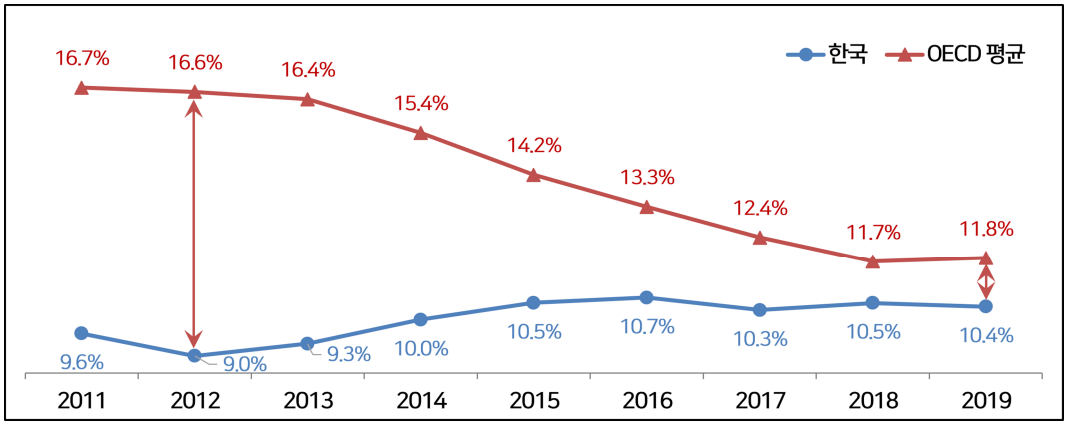
주: OECD 38개국 평균 / 자료: OECD Stat('21.8.30 추출)

(2) 주요 연령대별: 청년층, 핵심근로계층, 고령층

○ 주요 연령대별 실업률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 다만 2011~2019년간 우리나라 실업률은 높아진 반면, OECD 평균은 낮아지는 모습

❶ **(청년층: 15~24세)** 우리와 OECD 평균 간 청년층 실업률 격차(하회폭)는 2012년 7.6%p까지 확대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우리 청년층 실업률은 증가한 반면 OECD 청년층 실업률은 감소하면서 2019년엔 격차가 1.4%p로 대폭 축소

< 그림 4. 우리나라와 OECD의 청년층 실업률 추이(2011~2019) >



주: OECD 38개국 평균 / 자료: OECD Stat('21.8.30 추출)

❷ **(핵심근로계층: 25~54세)** 우리와 OECD 평균 간 25~54세 실업률 격차(하회폭)는 2012년 4.3%p까지 확대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우리나라 25~54세 실업률은 증가한 반면 OECD 25~54세 실업률은 감소하면서 2019년에 격차가 1.4%p로 대폭 축소

❸ **(고령층: 55~64세)** 우리와 OECD 평균 간 고령층 실업률 격차(하회폭)는 2013년 3.4%p까지 확대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우리나라 고령층 실업률은 증가한 반면 OECD 고령층 실업률은 감소하면서 2019년엔 격차가 0.8%p로 대폭 축소

< 표 4. 우리나라와 OECD의 주요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2011~2019)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15~24세	한국(A)	9.6%	9.0%	9.3%	10.0%	10.5%	10.7%	10.3%	10.5%	10.4%	10.0%
	OECD(B)	16.7%	16.6%	16.4%	15.4%	14.2%	13.3%	12.4%	11.7%	11.8%	14.3%
	격차(B-A)	7.1%p	7.6%p	7.1%p	5.4%p	3.7%p	2.6%p	2.1%p	1.2%p	1.4%p	4.3%p
25~54세	한국(A)	3.2%	2.9%	2.9%	3.3%	3.2%	3.4%	3.5%	3.6%	3.5%	3.3%
	OECD(B)	7.2%	7.2%	7.2%	6.8%	6.3%	5.9%	5.4%	5.0%	4.9%	6.2%
	격차(B-A)	4.0%p	4.3%p	4.3%p	3.5%p	3.1%p	2.5%p	1.9%p	1.4%p	1.4%p	2.9%p
55~64세	한국(A)	2.5%	2.5%	2.2%	2.5%	2.8%	2.8%	2.5%	2.9%	3.0%	2.6%
	OECD(B)	5.8%	5.7%	5.6%	5.2%	4.9%	4.7%	4.3%	4.0%	3.8%	4.9%
	격차(B-A)	3.3%p	3.2%p	3.4%p	2.7%p	2.1%p	1.9%p	1.8%p	1.1%p	0.8%p	2.3%p

주: 1. 격차는 OECD 실업률에서 한국의 실업률을 뺀 수치
2. OECD 38개국 평균
자료: OECD Stat('21.8.30 추출)

2 코로나19 위기(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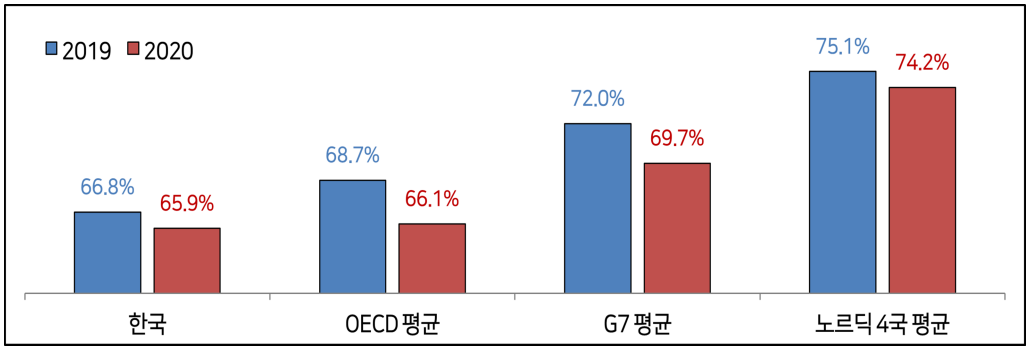
가 고용률(15~64세)

❶ **(연간)** 2020년 우리나라 고용률은 65.9%로 전년대비 0.9%p 하락. 우리나라 고용률 하락폭은 OECD 평균 하락폭(2.6%p)의 1/3 수준에 그침(전년비).

※ 우리와 OECD 평균 간 고용률 격차(하회폭)도 '19년 1.9%p에서 '20년 0.2%p로 대폭 감소

- G7 국가의 2020년 평균 고용률 감소폭(전년비)은 2.3%p로 우리보다 컸고, 노르딕 4개국의 평균 고용률 감소폭(0.9%p)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

< 그림 5. 우리나라와 주요 경제권역별 고용률(2019 vs 2020) >



주: '20년 OECD 평균은 멕시코 제외 37개국 대상 / 자료: OECD Stat('21.8.30 추출)

❷ **(분기별)**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2020년 2분기 고용률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전기비). 다만 우리나라 고용률 변동폭은 다른 경제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

- G7 국가 평균 고용률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2020년 2분기에는 우리나라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1.8%p 높았음.

< 표 5. 우리나라와 주요 경제권역별 분기별 고용률(2020) >

구분	2020.1q	2020.2q	2020.3q	2020.4q
한국	66.8%	65.3%(-1.5%p)	65.7%(+0.4%p)	65.7%(-)
G7 국가	72.0%	67.2%(-4.8%p)	69.3%(+2.1%p)	70.1%(+0.8%p)
노르딕 4국	75.0%	73.6%(-1.4%p)	73.8%(+0.2%p)	74.2%(+0.4%p)
OECD 평균	68.6%	63.5%(-5.1%p)	65.7%(+2.2%p)	66.7%(+1.0%p)

주: ( )안은 전기대비 증감률 / 자료: OECD Stat('21.8.30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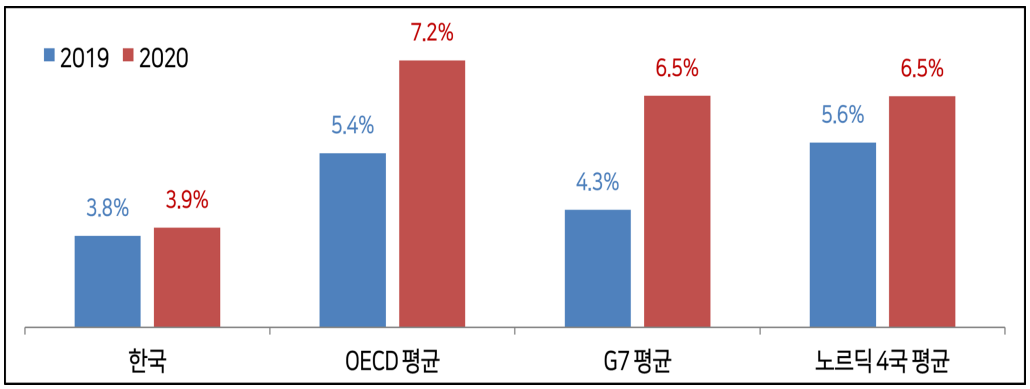
나 실업률(15세 이상)

❶ **(연간)** 2020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3.9%로 전년대비 0.1%p 상승. 우리나라 실업률 상승폭은 OECD 평균 상승폭(1.8%p)보다 월등히 낮음(전년비).

※ 우리와 OECD 평균 간 실업률 격차(하회폭)도 '19년 1.6%p에서 '20년 3.3%p로 크게 확대

- 2020년 G7 국가의 평균 실업률 상승폭(전년비)은 2.2%p로 OECD 평균 상승폭보다 큰 반면, 노르딕 4국 평균 실업률 상승폭(0.9%p)은 OECD 평균 상승폭의 1/2 수준에 그침.

< 그림 6. 우리나라와 주요 경제권역별 실업률(2019 vs 2020) >



주: OECD 38개국 평균 / 자료: OECD Stat('21.8.30 추출)

❷ **(분기별)**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2020년 2분기 실업률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전기비). OECD 평균 실업률은 2020년 3~4분기에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2020년 4분기에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G7 국가 평균 실업률은 2020년 2분기 대폭 상승한 후 하락한 반면, 노르딕 4국 평균 실업률은 2020년 3분기까지 상승한 후 하락

< 표 6. 우리나라와 주요 경제권역별 분기별 실업률(2020) >

구분	2020.1q	2020.2q	2020.3q	2020.4q
한국	3.7%	4.1%(+0.4%p)	3.8%(-0.3%p)	4.3%(+0.5%p)
G7 국가	4.3%	8.6%(+4.3%p)	7.0%(-1.6%p)	6.0%(-1.0%p)
노르딕 4국	5.5%	6.6%(+1.1%p)	7.2%(+0.6%p)	6.9%(-0.3%p)
OECD 평균	5.4%	8.6%(+3.2%p)	7.7%(-0.9%p)	7.0%(-0.7%p)

주: ( )안은 전기대비 증감률 / 자료: OECD Stat('21.8.30 추출)

다 코로나19 고용 충격 국제비교

※ 2020년 OECD 평균 고용률(실업률)의 '수치'와 '전년비 증감폭(고용 충격)'을 중심점으로 4분면*으로 도식화하여 분석

* ① 높은 고용률(실업률), 큰 고용 충격 / ② 높은 고용률(실업률), 작은 고용 충격
③ 낮은 고용률(실업률), 큰 고용 충격 / ④ 낮은 고용률(실업률), 작은 고용 충격

❶ **(고용률로 본 고용 충격)**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고용률이 낮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고용률 감소폭)이 작은 국가군에 속함(유사 국가군: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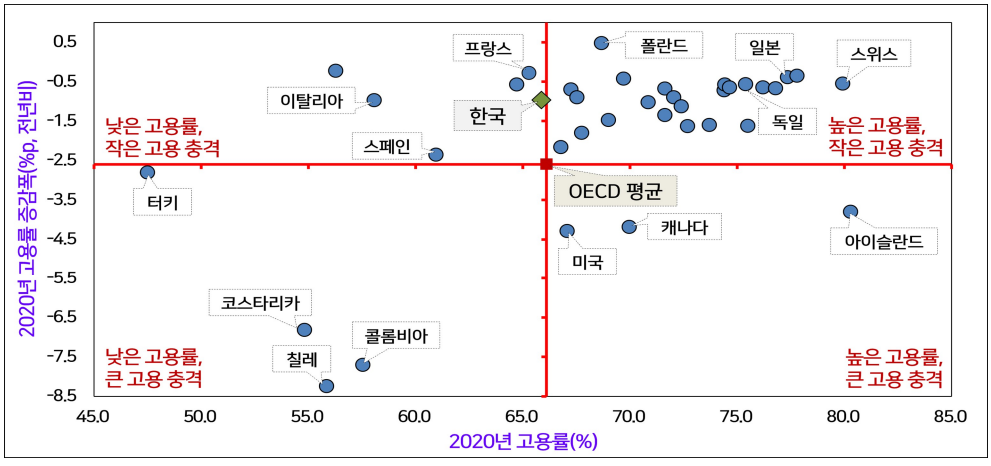
- OECD 평균보다 높은 고용률, 작은 고용 충격(24개국): 독일, 일본, 영국 등
- OECD 평균보다 높은 고용률, 큰 고용 충격(3개국): 미국, 캐나다 등

< 표 7. 고용률로 본 OECD 국가의 코로나19 고용 충격 >

구분	낮은 고용률	높은 고용률
작은 고용 충격	<6개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24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큰 고용 충격	<4개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터키	<3개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미국

주: 1. '20년 고용률 기준. OECD 37개국(멕시코 제외) 대상 분석결과
2. 낮은 고용률 vs 높은 고용률 → '20년 OECD 평균 고용률(66.1%) 기준으로 구분
3. 작은 고용 충격 vs 큰 고용 충격 → '20년 OECD 평균 고용률 감소폭(-2.6%p, 전년비) 기준으로 구분

< 그림 7. 고용률로 본 OECD 국가의 코로나19 고용 충격 >



❷ **(실업률로 본 고용 충격)** 우리는 OECD 평균보다 실업률이 낮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실업률 증가폭)이 작은 국가에 속함(유사 국가군: 독일, 일본, 영국 등 22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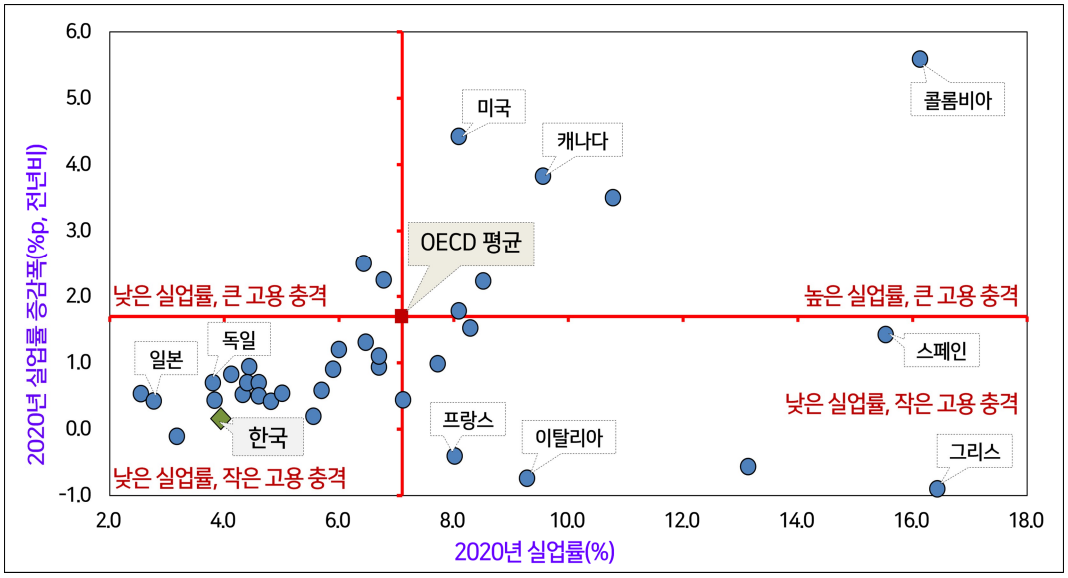
-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 큰 고용 충격(7개국): 미국, 캐나다 등
-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 작은 고용 충격(7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 표 8. 실업률로 본 OECD 국가의 코로나19 고용 충격 >

구분	낮은 실업률	높은 실업률
큰 고용 충격	<2개국>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7개국>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미국
작은 고용 충격	<22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7개국>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주: 1. '20년 실업률 기준. OECD 38개국 대상 분석결과
2. 낮은 실업률 vs 높은 실업률 → '20년 OECD 평균 실업률(7.2%) 기준으로 구분
3. 작은 고용 충격 vs 큰 고용 충격 → '20년 OECD 평균 실업률 증가폭(1.8%p, 전년비) 기준으로 구분

< 그림 8. 실업률로 본 CECD 국가의 코로나19 고용 충격 >



참고 2. 청·장년층이나 민간부문보다는 60세 이상과 공공부문으로 버틴 2020년 고용

1 **(60세 이상만 증가)**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나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영향이 큰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크게 증가

▸ 2020년 취업자는 청년층(15~29세)에서 18.3만명 줄었고 30~40대에서 32.2만명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에서만 37.5만명이나 증가(전년비)

< 연령별 취업자 증감(전년비) 추이(단위: 만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5~29세	4.3	-0.1	-0.3	4.1	-18.3
30~39세	-5.7	-2.9	-6.1	-5.3	-16.5
40~49세	-5.9	-5.0	-11.7	-16.2	-15.8
50~59세	8.2	15.2	4.4	9.8	-8.8
60세 이상	22.3	24.2	23.4	37.7	37.5
합계(전체 취업자)	23.1	31.6	9.7	30.1	-21.8

자료: 통계청

2 **(공공부문이 이끈 고용)** 민간부문 고용은 감소한 반면, 정부재정이 투입된 공공부문(공공행정, 보건복지)은 고용이 크게 증가

▸ 2020년 취업자는 민간부문(농림어업 제외)에서 43.7만명 줄어든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16.6만명 증가(전년비)

< 업종별 취업자 증감(전년비) 추이(단위: 만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민간부문(농림어업 제외)	16.0	19.4	-14.0	11.9	-43.7
공공부문	13.5	11.6	17.7	12.7	16.6
농림어업	-6.5	0.6	6.2	5.5	5.0
합계(전체 취업자)	23.1	31.6	9.7	30.1	-21.8

주: 민간부문(18개): 제조, 도소매, 운수창고 등 / 공공부문(2개) : 공공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자료: 통계청

3 결론 및 시사점

□ 코로나19 이전(2011~2019년) 우리나라 주요 고용지표는 부진한 흐름 지속

○ 코로나19 이전까지 우리나라 고용률은 OECD 평균 고용률과의 격차(하회폭)가 커졌고, OECD 평균 실업률은 떨어진 반면 우리 실업률은 높아지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부진한 흐름 지속

※ 우리 고용률(15~64세)은 '15년 이후 66%대에서 정체되면서 OECD 평균과의 격차(하회폭)가 점점 더 커졌음.

※ 우리 실업률(15세 이상)은 '14년부터 높아진 반면 OECD 평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우리와의 격차가 오히려 줄어듦.

□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작은 편. 다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보다 낮아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움.

○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로 본 코로나19 고용 충격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률 감소폭(%p, 전년비): [韓] 0.9 vs [OECD 평균] 2.6
※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률 증가폭(%p, 전년비): [韓] 0.1 vs [OECD 평균] 1.8

참고 3.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서 효율적 방역 조치, 정부 정책 노력 등이 충격 최소화에 기여하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경제 위축이 작았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차단했고, 다른 회원국에 비해 경제 위축과 고용 하락폭이 작은 수준(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2020.8)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했고, 2020년 경제성장률은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코로나19 발생 1년간)는 141명으로 OECD 37개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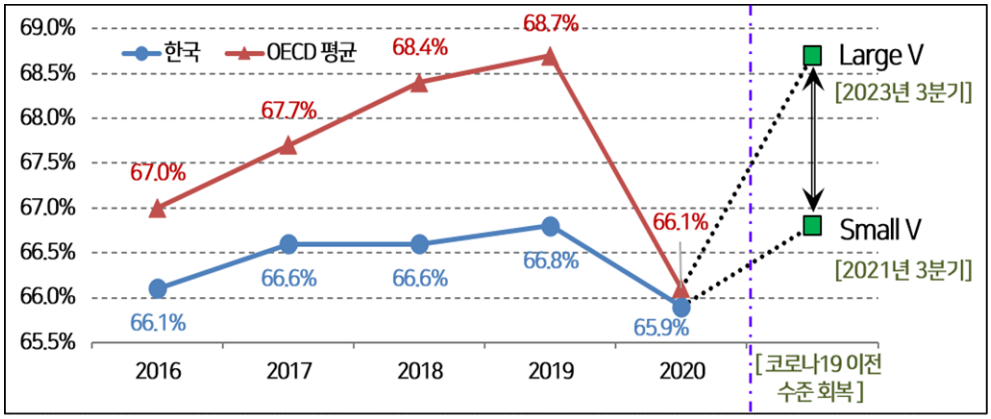
※ OECD 주요국의 '20년 경제성장률(%, OECD)
[韓] -1.0 [美] -3.5 [日] -4.8 [獨] -5.3 [佛] -8.2 [英] -9.9 [OECD 평균] -4.7

○ 우리 고용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을 여전히 하회할 전망

※ 코로나19 이전 우리 고용률은 OECD 평균 고용률보다 1.9%p 낮았음.

- 우리 고용률의 반등폭은 작은 V자형(Small V), OECD 평균 고용률의 반등폭은 큰 V자형(Large V)일 것으로 예상

< 그림 8. 우리나라와 OECD의 고용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OECD

○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됐던 고용 부진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우리나라 '20년 실업률 4.0% 중 인구구조, 고용제도 등 경기와 상관없는 추세적 요인이 3.9%에 달하고, 나머지 0.1%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존재(한국은행, '21.4)

□ **특히 최근 고용회복이 아직 더딘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고용 없는 경기 회복(jobless recovery)'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나라 고용이 2021년 3월부터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2020년 고용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모습.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하반기 고용시장 불확실성 확대

-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업자 감소 본격화. 2021년 3월 이후 취업자 수가 증가(전년동월비)로 전환된 것은 상당 부분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20년과 '21년 2~7월 중 월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통계청)

▸'20년: 49.2(2월)→ -19.5(3월)→ -47.6(4월)→ -39.2(5월)→ -35.2(6월)→ -27.7(7월)

▸'21년: -47.3(2월)→ 31.4(3월)→ 65.2(4월)→ 61.9(5월)→ 58.2(6월)→ 54.2(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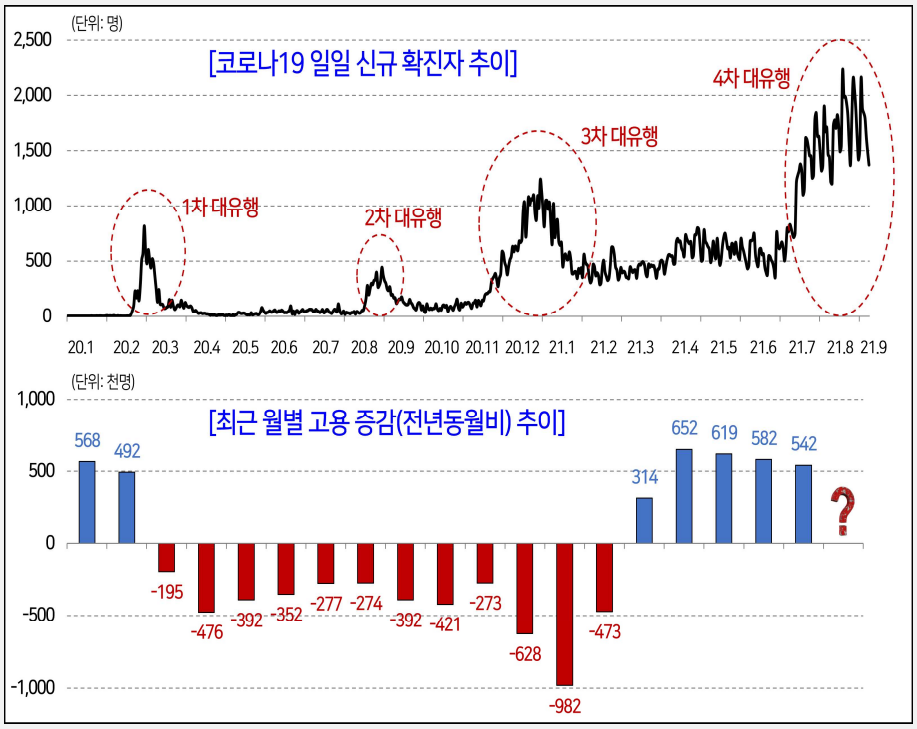
< 2021년 하반기 고용시장 전망 >

■ 코로나19 1~3차 대유행 시기 고용 위축 사례를 감안하면, 4차 대유행(2021.7월~)으로 2021년 하반기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전망

▸ 실제로 1차 대유행(2020.2월~2020.3월), 2차 대유행(2020.8월~2020.9월), 3차 대유행(2020.11월~2021.1월) 때는 약 1~2개월 후에 고용이 크게 위축

※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지표 특성상 1~3차 대유행의 영향이 약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큰 폭의 고용 감소로 이어졌음.

<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와 최근 월별 고용증감(전년동월비) 추이 >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경기회복 이후 고용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된 사례가 있었고,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대면 서비스업 등 취업 유발효과가 큰 업종의 피해가 크므로 고용 회복속도가 과거 위기와 비교해서도 더욱 더뎌질 수 있음.

*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시 고용수준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는 경기회복 이후 각각 1년 및 6개월 정도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한국은행, '20.12)

□ 다른 OECD 국가보다 더 빠르고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❶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❷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내실 있게 구축하고, ❸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

❶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 現 노동법은 이미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데 치중되어 있어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OECD는 우리나라 상용직 근로자의 개별해고가 다른 국가들보다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생산성에 부합하는 노동력 재배치가 저해된다고 지적(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 '20.8)

○ 향후 노동정책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기업들이 시장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취업 취약계층이 전일제·정규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고용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노동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제고될 수 있음.

❷ 촘촘하고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안전망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어 기제

○ 앞으로 상시화될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내실 있게 구축해야 함.

- 現 고용보험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제고

※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例. 국가고용인프라 구축비용 등) 일반회계 이관 확대,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최저임금 연동폐지, 무급휴일 제외) 등 제도개선 필요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노동이동 촉진 지원

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은 그 이전(1~3차 대유행)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현재 진행형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될 전망

○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관광숙박업소 등은 최근까지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그간의 고용유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큼.

※ [항공업] 국외 항공 여객 수요가 대폭 줄어들면서 항공업계 매출 감소

- ‘21년 1~7월 국제선 항공기 이용객(150만명)은 코로나19 이전인 ‘19년 1~7월(5,383만명)의 3% 수준에 그침(한국공항공사).
- 대한항공 등 6개 항공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5.8조원)은 코로나19 이전인 ’19년 상반기 매출액(10.9조원)의 1/2 수준에 그침(연결재무제표 기준).

※ [여행업] 코로나19, 해외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여행업계 경영난 심화

- ‘21년 1~7월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55.6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 1~7월(1,765.0만명)의 3% 수준에 그침(한국관광공사).
- 여행업 주요 2개사(하나·모두)의 ‘21년 상반기 매출액(63억원)은 코로나19 이전인 ‘19년 상반기 매출액(3992억원)의 2% 수준 불과(연결재무제표 기준)

○ 이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말이면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소한 올해 연말(2021년 12월말)까지 연장할 필요

※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180일(특별고용지원 업종은 270일)로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되어 있어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야 함.